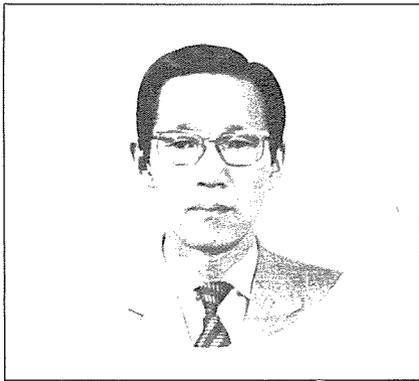


## 보다 살기좋은 環境조성이 목표

### 廢棄物의 資源化 연구에 중시모아



李承務 회장

『人口의 急増과 산업발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성과 유통구조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都市 및 産業쓰레기의 처리·처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연탄재로 말미암아 1인당 쓰레기발생량 1.9kg/일)이 많은 우리로서는 폐기물처리가 단순한 매립이나 소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자원으로 재생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처리방법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学会를 이끌어온 李承務회장(연세대교수)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代棼에너지源으로서 쓰레기가 갖고 있는 바이오에너지를 生物學的, 化學工學的 또는 土木工學的으로 활용하는 첨단기술의 개발내지는 실용화로 도시 및 산업폐기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人間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자원」으로 전

환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의정부시에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로」 난지도 쓰레기장의 「고체연료화공장」 목동 신정동의 「열병합발전용소각로」등 쓰레기의 에너지자원화기술이 계속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폐기물의 다양화로 인해 그 처리문제가 복잡 다기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미각국이나 일본등지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방법도 아울러 발달하여 각 폐기물 특성에 맞도록 소각처리, 퇴비화처리, 매립처리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나 분석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의 99%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매립지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비안정적폐기물에 의한 토질오염, 인간환경위협등 여러가지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 폐기물처리방법의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과제입니다.』 李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날로 그 양이 증대되고 그 성상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규제법이 각기다른 현실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규제 관리할 법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폐기물처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기술축적은 물론 이를 토대로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처리방법의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에 관한 기본방향은 폐기물을 그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중 합성폐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資源再生이라는 측면에서 韓國資源再生公社를 통해 수집·처리토록하고 있다. 특히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 폐유, 폐고무등을 일컫는 産業廢棄物은 중금속등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국민보건에 직접 위해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불안전하게 처리할 경우 水質 또는 토양오염등 2차공해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요망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이용 또는 재가공기술이 미약하고 유해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따라서 아직 미개척분야인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다 본격적으로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이들이 모여 韓國廢棄物學會를 결성하게 됐다고.

외국에 비해 연륜이 짧아 겨우 걸음마단계에 불과한 국내폐기물처리에 관한 연구가 學會설립을 계기로 보다 본격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李회장은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日本조차도 폐기물전문학회가 없는 현실에 우리나라가 한발 먼저 학회를 설립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韓國廢棄物學會는 폐기물에 관한 학문과 처리응용에 관한 이론 및 기술적인 연구개발, 정보교환 및 산학협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3년말 발족했는데 특히 폐기물 중에서도 주로 고형폐기물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李회장은 그동안 폐기물처리 기술 및 심포지움을 비롯 각종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學會誌발간, News letter 발행, 폐기물처리기술에 관한 종합연구 Project 등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산하에 설치된 기술개발분과를 비롯, 시스템, 자원화분과등 3개위원회활동 또한 활발하다고 소개한다.

『현재 회원은 270여명으로 이 가운데 日本 학자들도 있고 단체회원으로 美웨스팅하우스 사등이 가입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

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 2천여명규모의 大學會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李회장은 타학회에 비해 産學協同이 잘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企業체와의 긴밀한 유대강화로 선진의국기술의 국내 토착화와 각종설비의 국산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현재 국내 6개 국립공원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만간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외국과의 정보교류를 위해 海外視察團을 파견, 외국의 최신시설을 돌아보고 자료교환 공동연구도 실시할 작정이며 87년에는 국제학회를 유치, 우리의 자그마한 역량이나마 과시할 생각입니다』 李회장은 이와함께 아직 新生學會이니만큼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회원확보에 힘쓰고 학회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다. 李회장은 짧은 연륜에 비해 나름대로 학회활동을 활발히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아직 폐기물공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 국민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폐기물처리분야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오를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정주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폐기물의 배출원인 각가정에서의 폐기물 구성성분의 선별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배출폐기물을 감량화하고 그 다음에 배출폐기물의 질에 따라 매립, 소각, 퇴비화 및 열분해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매립, 매립량의 감량, 매립지의 안정화,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李회장은 끝으로 세계 여러나라 학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은 2천년대에 가서 지구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폐기물에 대한 기술개발이 사회발전을 뒤따르지 못하지만 크게 우려할바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구가 쓰레기더미에 묻혀서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살기좋은 지구로 가꾸는데 우리 모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記)